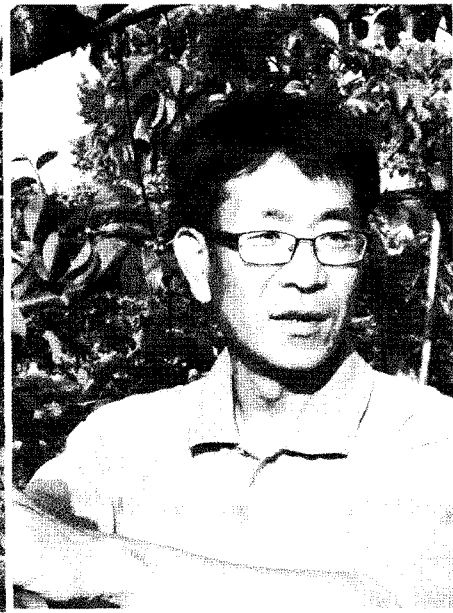


GAP인증농가로 지정받아 안전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터

현대 농업은 정부의 농정방향과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맞춤형 농법이 필요합니다.
이도배영농조합원은 이미 GAP인증심사절차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상태입니다.



‘천안’ 하면 연상되는 단어가 ‘천안삼거리 흥~’의 노래자락과 3.1운동때 독립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 그리고 대표 특산물인 ‘성환배’가 떠오른다.

100여년의 오랜 배 재배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성환은 재배지 대부분이 완만한 경사지로 토양환경이 배 재배에 적합하고 기온의 일교차가 커 당도향상에 적합한 지형이다.

‘성환배’는 황금빛이 짙고 껍질이 얇아 씹는 맛이 우수하며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명품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봄철 이상저온현상과 일조량 부족으로 착과율이 예년보다 현저히 낮아 올한해 과수농가의 시름이 어느해보다 깊으리라 예상이 된다. 일부 마트 농산물구입담당자들은 벌써부터 추



석물량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농사란, 사람 뜻만으로 되는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도와야 되는 것’이란 선인들의 말처럼 요즘의 농업 현실에서는 제삼 확인되어진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5년간 고품질 배 생산에 진력하며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인증을 받기 위해 사전준비에 여념이 없는 천안 성환의 이도배영농조합법인 정상섭(46) 회장으로부터 신세대 농업경영철학을 들어 보았다.

천안의 성환은 예로부터 배의 고장으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성환배 장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성환배는 환경 및 기후,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에서 재배되어 황갈색의 색상이 밝고 선명합니다. 과형이 예쁘고 당도가 높아 상품성과 균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과일 섭취 시 뒷맛이 유연하고 찌꺼기가 남지 않는 고품질의 명품 배입니다. 또한 타 내륙지역에 비해 고온현상이 적어 저장성이 우수하며, 수분 함량이 높아 소화 및 이뇨작용을 돕고 갈증과 숙취해소에도 으뜸입니다. 해열과 천식, 및 감기예방 등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품질 성환배 생산을 위한 이도배영농조합법인의 차별화된 재배방식이나, 노하우를 소개해주시지요?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각각 구성원의 우수 배 생산을 위한 열정의 땀과 서로의 화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의 상품성은 겨울철 전정처리(나무가지치기)부터 화절, 적과, 비배관리 등의 재배과정과 수확후 저장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도배영농조합법인은 이 모든 과정을 공동적으로 관리하며 농장의 미생물 유입의 차단을 위해 주변환경을 깨끗이 정화하는데 주력합니다. 또한 수확후 건설한 배만을 엄선하여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시켜 과육의 신선함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인해 농산물의 수확량 감소와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 해 배 재배 여건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배꽃 개화기때 냉해로 고사된 꽃들이 많아 착과율이 예년보다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낮은 착과율은 곧 외형이 찌그러진 과일이 많아지고 당도가 떨어져 상품성과 수확량에 큰 차질을 빚어 결국에는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나마 성환은 타지역보다

기상여건이 평이해 조심스럽게 전년도 수준의 수확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것은 조합원의 각고의 노력과 주변상황에 적절히 잘 대처한데 힘 입은 것입니다.

최근 이도배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인증을 부여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사항 및 GAP인증농산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지요?

현대 농업은 정부의 농정방향과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변화에 적극 부응하는 맞춤형 농업이 필요합니다. GAP인증농산물은 국내

에서 아직 인지도가 미비하지만

재배단계부터 수확후 포장·선별단계, 유통까지 병원성 미생물, 잔류농약, 중금속, 독소등의 위해요소를 체계적인 관리를 거쳐 생산되는 매우 우수농산물입니다.

이미 조합원 모두가 GAP인증심사절차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상태이고 곧 GAP인증 농가로 지정 받으면 유통시장의 다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에 있어 농약은 필수농자재라 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농약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농약은 사용법에 따라 양면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농작물을 재배에 있어 농약의 역할을 부인하는 농업인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오? 남용은 환경 및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작물에 병해충을 완전히 방제한다는 의미보다 일정수준 작물 수확량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농자재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GAP인증농산물 생산도 역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만 가능합니다.

농산물 소비 주체인 도심지 소비자는 농산물과는 무관하게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시는 전문가로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고견을 주신다면?

소비자들이 느끼시는 잔류농약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는 안전성 홍보의 노력을 농업관계자 모두가 지속적으로 펼쳐 소비자로 하여금 관행농산물의 편견이나 오해의 끈을 제거,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농약업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는 작물보호제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의 현실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환경과 인축에 안전한 작물보호제의 신제품 개발과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과 상품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의 공급을 요구합니다. 덧붙여 도심지 소비자에게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해 끊임없는 농민의 노력을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Y

